

비시지

편집부

1. 비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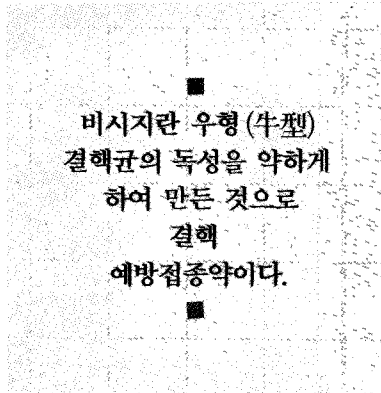
결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결핵예방접종 즉 비시지를 맞는 방법이 있다.

비시지란 우형(牛型) 결핵균의 독성을 약하게 하여 만든 것으로서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결핵에 대해서는 면역을 얻게하는 예방접종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전량을 본 협회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

이 비시지를 결핵균에 감염되기 전에 접종을 하면 결핵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결핵 발병의 가능성이 1/5로 줄어들고 이 예방접종의 효과는 10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된다.

2 비시지 접종방법

비시지접종 목적은 맹독균에 의한 자연감염 대신에 약독균을 투여해서 방어수단을 강구하게 하는 것으로서 최대의 예방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유효한



백신을 정확한 접종기법에 따라 접종해야 한다.

백신역가는 사용균주, 접종 당시 백신 ml당 총균수에 대한 생균수의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또 접종할 때까지 열이나 빛에 의한 손상으로 부터 얼마나 잘 보존했는지, 유효기간

(대개 생산후 1년)전에 사용했는지 여부와 백신 주사량에 따라 달라진다.

비시지접종전 투베르쿨린검사의 필요성에 관한 논란은 오래 지속 되어왔다.

현재 여러 조사에서 밝혀진 대로 비시지가 감염개체에 그리 나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사전 투베르쿨린검사 없이 비시지직접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시행상의 잇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단점은 백신 유효성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접종후 투베르쿨린반응의 해석을 어렵게 한다는 점이다.

3. 비시지접종 부위의 정상경과

피내접종후 생긴 팽진(wheel)은 30분 이내에 사라진다. 24~48시간후 접종부위에 구진(papule)이 나타났다가 차차 사라지고 2~4주 사이에 작은 몽우리가 생겨 점점 커지고 붉게 부어오르고 결국 굽는다. 이렇게 굽은 접종부위는 직경 4~8mm이 약간 패인듯이 보이고 진물이 나는 무통궤양을 남기며 터진다.

약 40%는 궤양이 곧 마르고 딱지가 앉았다 떨어져 나간다. 2차감염이 있으면 궤양이 더 오래가는 수가 많다.

거의 대부분 6~12주 사이에 접종부위에 4~7mm의 둥글고 주변이 불규칙하며 약간 들어간 반흔을 남기며 끝난다.

기감염자의 접종부위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병변이 더 분명하고 궤양과 반흔의 크기가 둘다 1~3mm정도 더 크다. 정상경과와 부작용 및 합병증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4. 부작용과 합병증

부작용은 정상 진전과정의 변형으로서 불편할 정도로 심한 경우이다.

대부분 약간의 치료나 치료없이 자연 치유된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겨드랑이에 생기는 림프선염으로 간혹 경부까지 퍼지는 경우가 있으나 그 이상 퍼지는

일은 없다.

부작용 관리원칙은 그냥 두는 것이다. 접종부위를 깨끗이 하고 필요하면 드레싱을 해주면 된다. 연고나 약을 바르지 않도록 하고 환자는 정상경과로 보면 되는 것이다.

간혹 제대로 관리했는데도 후유증을 수반하는 심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화농성 림프선염, 케로이드, 심

상루프스(lupus vulgaris) 및 골수염등이다.

농루가 있거나 없는 화농성 림프선염은 많은 양의 비시지를 접종했을때(종종 균덩어리가 많은 백신) 발생하고 특히 신생아나 영아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염증이 생긴 림프선은 직경이 3cm 이상이고 농양화해 터

져 잔류농루가 형성된다. 2차감염이 있으면 열성이고 통증이 심하게 된다.

5. 비시지접종 금기사항

면역결핍 또는 억제상태에 있는 개체를 제외하고는 비시지접종 절대금기 대상은 없다.

금기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대상자로써 체중 2kg이내의 미숙아, 심한 영양실조, 전신성 피진 또는 발진, 임원을 요하는 심한 질환을 앓고 있을때다. 금기사항 때문에 접종을 연기하는 것은 대개 접종기피가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 †

■ 거의 대부분 6~12주 사이에 접종 부위에 4~7mm의 둥글고 주변이 불규칙하며 약간 들어간 반흔을 남기며 끝난다. ■